

자영업주의 정신건강

: 우울을 중심으로

김 영 선(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옥 선 화(서울대학교 교수)

I. 문제제기

한국사회는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고비를 연달아 겪으면서 경제적 안정과 고용안정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되었다. ‘평생직장’이 사라지면서 고용안정성은 흔들렸고 개인과 가족의 삶은 경제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기술집약적인 고용형태로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실업이 ‘항상화’되는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이었지만 이 같은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임금근로자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불안정한 고용을 경험하는 계층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30, 40대의 남성근로자(반정호, 2006)에게까지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정이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은 자영업자에게도 고용안정성 개념을 확대·적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영국과 독일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비교연구(김안나, 2004)에서 1인 자영업자를 최저 단시간 노동과 기간제 노동과 함께 대표적인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들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2012.1.22)가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도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영업주의 생활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고 안정적이지 못한 점과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무직자-임시(일용)근로자-자영업자로 순환되는 저소득-저임금의 악순환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류재우, 최호영, 1999)는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정신건강 역시 취약할 것이라고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자영업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노동시장 변화와도 관련있다. 단순히 높은 비율 뿐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의 자영업 부문에서 창업과 폐업이 순환되고 있다는 점과 이들의 가계경제가 낮은 수준에서 현상유지되거나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영업의 가교일자리(성지미, 안주엽, 2004) 기능으로 더 많은 인구가 자영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많은 대기업들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하청업자를 고용하는 형태인 종속적 자영업주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한 비경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자영업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

인을 탐색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영업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및 가족관련변수, 사업체변수, 심리사회적 변수 등을 고찰하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임금근로자에 가려져 있었던 자영업주의 우울요인을 밝혀내고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비경제적 부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자영업주의 개념과 현황

자영업(self-employment) 개념은 다양하고 아직 일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아, 연구자에 따라 혹은 데이터 수집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많은 연구들은 통계청의 기준을 차용하여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자영업주로 분류하는 반면, OECD 등 국제기구는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분류상의 차이점이 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2). 자영업에 대한 초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류재우, 최호영(1999)은 ‘자영업주’란 자기 혼자 또는 무급·유급종사자와 함께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따라 자영업자와 고용주로 구분되며 자영업 종사자는 자영업주(고용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단위: 천명)

	1998	2000	2005	2010	2011
계	19,938	21,156	22,856	23,829	24,244
비임금근로자	7,641	7,795	7,671	6,858	6,847
*자영업자	5,616	5,864	6,172	5,592	5,59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92	1,458	1,664	1,499	1,50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225	4,407	4,508	4,093	4,088
*무급가족종사자	2,025	1,931	1,499	1,266	1,254
임금근로자	12,296	13,360	15,185	16,971	17,397
-상용근로자	6,534	6,395	7,917	10,086	10,661
-임시근로자	4,042	4,608	5,056	5,068	4,990
*일용근로자	1,720	2,357	2,212	1,816	1,74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취업자 = 비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 중 한 가지는 국가경제수준과는 다르게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자영업자 비율은 해당 국가의 GDP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서재만, 2011)에 따르면 OECD 평균 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간 상관계수는 -0.758로 높은 음의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GDP수준이 비슷한 국가들보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 중·고령자 창업이 증가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자영업자 비율이 GDP에 적절한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OECD자료(2011)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OECD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자영업자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OECD가입국 중 네 번째로 많은 자영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OECD 가입국 중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터키, 그리스, 멕시코, 한국 등)은 OECD국가 중 평균 실질은퇴연령이 높은 나라에 속하는 공통점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식퇴직연령 후 자영업 형태로 노동시장에 체류하는 중노년기 취업자가 많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고연령층에 많이 분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종사지위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의 1/3정도가 자영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관련 연구나 정책들은 대부분이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자영업자가 통계적이나 조세측면에서 쉽게 잡히지 않는 점도 강하게 작용하지만 자영업자가 한국 노동시장의 1/3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나 정책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자영업자에게 다가가려는 접근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자영업주는 그 특성과 배경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금재호 등(2006)의 자영업 실태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주는 크게 전통적인 생계형 자영업주와 자발적 자영업주로 분류하고 있다.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업, 부동산 및 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생계형 자영업주는, 대부분 저학력, 고연령, 소규모로 이들의 상당수는 현재 적자를 보거나 생계유지도 안 되는 별이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자발적 자영업주는 교육, 사업서비스, 보건 및 복지, 사회서비스 등의 신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이들로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고 나이가 젊으며 진취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이며 이들은 자영업을 그만 두는 경우 생계형 자영업에 비해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기가 쉬운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연구주제들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현황 및 실태, 요인가설, 지속기간, 성공요인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일부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과 조세탈루, 여성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생활만족, 계층의식 등에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최근 자영업자 관련 화두가 일자리 창출, 베이비부버, 근로빈곤, 높은 폐업률로 인한 사회보장확대 등으로 다시 이슈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관점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70%정도를 차지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저학력, 고연령, 1인 기업 등의 특성으로 이들은 근로빈곤이나 차상위계층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하여 이들이 경제위기에 노출되어 있

1) 공식은퇴연령과 실질은퇴연령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남/여): 터키(3.5/6.3), 그리스(4.4/2.9), 멕시코(8.1/10.0), 한국(11.2/7.9). 월간노동리뷰(2009)

거나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영업 부문에 대한 최근의 실태보고서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의 ‘자영업자 창업·폐업 특성 및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 감소추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50대와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자영업 진출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영업으로의 진출은 계속되고 있지만,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생존기간은 평균 3.4년이라는 점, 생존비율 역시 2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평균적으로 전체 개인사업자의 1/3이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 개인사업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0년 이내에 창업한 개인사업자들의 생존기간은 2.4년으로 나타나 개인사업자들의 불안정성이 점차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들의 생존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것 뿐 아니라 업체당 매출액 증가액도 하락하고 있으며, 창업전·후 소득을 비교해 본 결과 추정소득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개인사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자영업 부문의 취약성 증가는 창업활동의 장기변화 추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창업활동의 장기 변화 추이(1981~2008)를 살펴본 양현봉 등(2009)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활동은 시기별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81~1991년은 ‘임금고용 증가시기’, 1992~2002년은 ‘생계형 창업 증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는 ‘창업활동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창업활동 위축기에 진입한 10여년 전부터 자영업 부문의 안정성 및 성과는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영업주의 정신건강: 우울과 자아존중감, 계층의식

우울은 정신건강의 한 대표적인 차원으로서 오늘날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김동배, 손의성, 2005). 우울은 개인을 둘러싼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증상의 발현에 있어 이전부터 관련요인으로써의 상황요인, 즉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Okonogi, Fukatsu & Ohno, 1998)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주의 평균연령이 높다는 점에서 성인 및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한국 성인 남녀의 우울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지위, 가족 또는 사회적지지, 소득 및 경제활동 참여 등의 경제적 변수, 건강 등과 같은 일상성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박재규, 이정림, 2011). 한국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동거형태, 건강, 자아존중감 등의 심리적 변인, 사회적 지지등과 같은 사회적 변인, 소득이나 주관적 경제수준등과 같은 경제적 변인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배, 손의성, 2005).

이 중 성별은 우울과 관련한 주요 변수이며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을 느끼기 쉬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령 역시 중요 변수였으나 최근 김진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우울의 U자 곡선형태를 분해한 결과, 고용지위와 혼인지위 상실이 노인의 우울을 대부분

설명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연령에 따른 우울의 상당부분은 소득변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 활동참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영업주와 같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집단의 경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울에는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영향력도 매우 중요한데, 이 같은 사회심리적 변인들 중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에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있다(최수찬, 박해웅, 2005). 가족, 친구, 친지 등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해주고, 개인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우울의 시작과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자영업주의 우울을 살펴보는 요인으로 가족관계만족과 자아존중감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체 변수로는 고용지위와 창업시기, 업종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용주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영업주는 고용지위에 따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그 영향력이 매우 이질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용주의 경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수준이나 소득면에서 자영업자에 비해 여유로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창업시기와 관련하여서 양현봉 등(2009)과 KB금융지주 연구소(2012)가 제시한 바대로 최근의 경기침체에 창업한 경우 사업체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대체율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어느 시기에 창업했는지 역시 자영업주의 정신건강인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도 자영업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선웅 등(2011)과 금재호 등(2006)이 지적한 바대로 전통적 생계형 자영업인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들의 소득수준이 낮고 경기의 영향에 민감하여 자영업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자영업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최수찬, 박해웅, 2005)로 자영업주의 자아존중감은 상용직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송이은, 2010)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주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우울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영업주 연구에서 ‘계층성’은 이질성 논의와 관련하여 주요한 화두이다. 특히나 자영업 부문으로의 이동이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병훈, 신재열, 2011)에서 사회적 자산과 기술이 낮아 자영업 부문에 구축(push)되어 유입된 자영업주는 유인(pull)되어 진입한 자영업주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관적 계층의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본 송이은, 김진영(2012)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상용직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직업만족이나 생활만족과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의 자영업자들은 상용임금근로자에 비해 직업만족수준이 높은 반면, 한국의 자영업주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직무만족과 생활만족 모두를 낮게 보고하고 있어(오유진, 2009) 국내 자영업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지위, 주관적 건강, 가족관계만족, 경상소득을, 사업체관련 변수로 고용지

위, 창업시점, 업종을 심리사회적 변수로는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계층의식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자영업주의 우울은 개인 및 가족관계만족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자영업주의 우울은 사업체 관련 변수(지위, 업종, 창업시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자영업주의 우울은 주관적 계층의식, 자아존중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7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를 활용하여 자영업주의 정신건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2006년부터 구축하는 패널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빈곤층의 가구, 소득, 취업, 복지실태의 동태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인구주택총조사 90%(섬, 특수시설 조사구 제외)로부터 1단계 표본표출하여 제주를 포함한 전국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며, 저소득층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와 중위소득 60% 이상의 일반가구를 각각 50%씩 표본추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이 대부분 영세·생계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복지패널의 이 같은 특성은 본 연구의 대상인 자영업주의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총 5,886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7차 자료 중 조사 당시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고용주와 자영업자라고 보고한 사람 중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부문 자영업자는 연구에서 제외한다²⁾.

2) 농업부문 자영업자는 산업화 과정에서 그 비중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주 비율의 반전이 비농부문에서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자영업자 연구가 보다 분명한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대다수를 점하는 임금근로자와 비교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류재우, 최호영, 1999) 자영업 연구는 주로 비농 자영업자인 도시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농업부문은 제외하고자 한다.

2. 변수의 정의

우울은 한국복지패널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의 11문항을 사용하고자 한다. 응답자들은 ①식욕이 없음, ②비교적 잘 지냄, ③상당히 우울함, ④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⑤잠을 설침, ⑥외로움, ⑦불만없이 생활, ⑧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이 느낌, ⑨마음이 슬펐음, ⑩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이 느낌, ⑪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을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4점 척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긍정적인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며 11개의 문항을 합산하여 20/11을 곱한 점수를 종속변수를 사용하게 된다.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hach' α)는 .82이며, 계산된 값이 16점보다 높은 경우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건강상태, 경상소득, 가족관계만족을, 사업체관련변수는 고용지위, 창업시기, 업종을, 심리내적변수로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자아존중감을 포함하며 이는 척도 및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표 2> 척도 및 변수의 정의

구분	형태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서열	CES-D 11 우울척도	0점(극히 드물다 ~ 3점(대부분 그랬다).
	연속	연령	단위(세)
	dummy	성별	1=남성
통제변수	dummy	교육수준	1=중학교 이하 2=고등학교 3=전문대 이상
	dummy	결혼지위	1=유배우 2=미혼, 이혼, 별거, 사별
	서열	건강상태	1=아주건강하지않음 ~ 5=아주건강함
	서열	가구 경상소득	로그 변환
	서열	가족관계만족	1=매우불만족 ~ 7=매우만족
	dummy	고용지위	1=자영업자 0=고용주
	dummy	업종	1=음식숙박도소매업 2=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기타
독립변수	dummy	창업시기	1=1991년 이전 2=1992~2002 3=2003년 이후
	서열	주관적 계층의식	1=하위 2=중하 3=중간 4=중상 5= 상위
	서열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1=대체로 그렇다 ~ 4=항상 그렇다

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stata 12.0을 사용하였으며, 개인데이터와 가구데이터를 개인구분변수(pid)를 기준으로 병합(merge)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영업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영업주의 개인 및 사업체 변수, 심리적 변수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둘째, 개별변수들과 우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각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심리내적 변수들의 매개효과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의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52.61세이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지위면에서는 유배우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수가 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자영업주는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2.28시간으로 나타났으나 집단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창업시기별로 살펴보면 근래도 들어 창업한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업종분포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과 같은 전통적 업종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주 개인은 스스로를 높은 수준의 계층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 가족관계만족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척도에 의한 우울증 진단결과, 약 6% 가량은 병리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을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01)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성	527(87.69)	창업 시기	임금근로증가시기	98(16.31)
	여성	74(12.31)		생계형창업증가시기	181(30.12)
연령	30대 이하	73(12.15)	업종	창업 위축기	322(53.58)
	40대	185(30.78)		제조업	30(6.24)
	50대	189(31.45)		전기,가스,증기및수도	3(0.63)
	60대	96(15.97)		하수폐기물, 환경복원, 건설	34(7.07)
	70대 이상	58(9.65)		도소매업	139(28.90)
평균 52.61				운수업	98(20.3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60(26.62)		숙박 및 음식	40(8.32)
	고졸	261(43.43)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46)
	전문대졸 이상	180(29.95)		금융 및 보험업	5(1.04)
가족관계 만족	낮은집단	205(34.11)		부동산임대업	18(3.74)
	중간집단	340(56.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1.46)
	높은집단	56(9.32)		사업시설관리 및 서비스업	3(0.62)
가구 경상소득	8.34(.71)	4.06-10.51		교육서비스업	9(1.8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1.46)
결혼지위	미혼	25(4.16)		예술 및 여가서비스업	9(1.87)
	유배우	494(82.20)		협회, 수리 및 개인서비스	66(13.72)
	이혼	36(5.99)		가구내고용활동 등	6(1.25)
	사별	42(6.99)			
	별거	4(0.67)			
지역구분	서울	112(18.64)	주관적 계층의식	하위	104(22.66)
	광역시	182(30.28)		중하	216(47.06)
	시	213(35.44)		중간	132(28.76)
	군	84(13.98)		중상	6(1.31)
	도농복합군	10(1.66)		상위	1(0.22)
주관적 건강	아주 건강	2(0.33)	사업장 규모	1~4명	562(93.51)
	비교적 건강	58(9.65)		5~9명	27(4.49)
	건강한 편	110(18.30)		10~29명	11(1.83)
	비교적 덜 건강	327(54.41)		30~49명	1(0.17)
	아주 건강하지 않음	104(17.30)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226(37.60)
		중간 집단		247(41.10)	
		높은 집단		128(21.30)	
			우울증 진단	일상적 우울	564(93.84)
			진단성 우울	37(6.16)	
			우울증	평균 4.25(6.21)	0 - 47

<표 4>는 자영업주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개인관련변수만을 투입한 Model 1에서는 주관적 건강과 가족관계만족수준이 높고 남성이며 유배우인 경우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개인관련변수를 통제 후 사업체 관련 변수를 투입한 결과, 사업체 변수는 자영업주의 우울을 거의 설명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을 투입하자 통제된 변수들 중 업종 변수의 영향력이 미비하게 나타났는데 업종이 전통적 업종에 종사하거나 기타인 경우에 비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의 업종인 경우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선웅, 전인우(2011)가 지적한 것처럼 이들 업종이 한계업종이라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모델인 자아존중감 투입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주의 우울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영업주의 우울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N=601)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S.E	β	S.E	β	S.E	β	S.E
성별(준거: 여성) 남성	-2.69	.97**	-2.56	.97**	-2.50	.97*	-2.31	.92*
연령	-.01	.02	-.01	.02	-.00	.02	-.01	.02
교육수준(준거: 중졸이하) 고졸	-1.13	.63 [†]	-1.07	.64 [†]	-1.01	.63	-.71	.60
전문대졸 이상	-.97	.71	-1.03	.73	-.85	.72	-.17	.69
결혼지위(준거: 유배우) 미혼, 별거, 이혼, 사별	-1.67	.85*	-1.55	.85 [†]	-1.48	.85 [†]	-1.57	.80 [†]
주관적 건강	-1.30	.30***	-1.30	.30***	-1.19	.31***	-.81	.29**
가구 경상소득	-.55	.36	-.60	.38	-.16	.41	-.21	.39
가족관계만족	-1.28	.21***	-1.28	.21***	-1.23	.21***	-.62	.21**
고용지위(준거: 고용주) 자영업자			-.11	.60	-.30	.60	-.43	.57
창업시기(임금고용증가) 생계형창업증가시기			.05	.72	-.14	.72	-.46	.69
창업활동 위축기			-.09	.71	-.27	.71	-.88	.68
업종(음식숙박도소매)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6	.65	-1.19	.65 [†]	-1.10	.62 [†]
기타			-.32	.51	-.35	.51	-.25	.47
주관적 계층의식					-.93	.32**	-.63	.31*
자아존중감							-5.61	.69***
Constant	25.89		26.50		23.97		36.95	
F	23.56***		14.66***		14.36***		19.23***	
R-square	.24		.25		.26		.33	
Adj. R-square	.23		.23		.24		.31	

주: [†]p<.10, *p < .05, **p < .01, ***p < .001

회귀분석결과 개인변수인 성별의 영향력은 지속되는 반면, 김진영(200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연령의 영향력은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았다. 예상외로 학력의 영향력도 크지 않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가족관계만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주의 우울에는 성별, 결혼지위, 가족관계만족, 업종, 주관적 계층의식, 자아존중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시기와 고용지위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세계화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그에 따른 고용불안정의 심화라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에 대한 관심은 비정규직의 확대 및 저임금근로자와 근로빈곤계층의 증가 등의 양극화 담론이 형성되면서 더욱 확대(반정호, 2006)되고 있는 상황이며,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까지 불안정한 생활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자 대다수가 생계형이기 때문에 더 그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주의 정신건강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자영업 관련 연구가 경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비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

자영업자의 우울은 사업체변수들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영업의 이질성 때문이거나 자영업주 집단 전체의 우울수준이 낮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영업 관련 연구의 어려움이 집단의 이질성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이라는 지적(금재호 등, 2006)은 사실상 자영업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나 데이터수집과정과 분석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여 이후 연구에서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영업주의 우울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영업주의 우울에는 가족관계만족의 영향이 강하게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 자영업주 집단의 가족과 관련한 심도있는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은 과거의 완충적 노동시장의 역할과, 임금근로와 실업의 가교일 자리, 그리고 노년의 일자리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한국적 상황은 자영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2)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분석.
- 금재호·조문모(2005) 고용 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국제경제연구, 11(3), 79-114.
- 김광기(1998) 경제위기와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 5-17.
- 김동배·손의성(2005)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25(4), 167-187.
- 김안나(2004) 불안정 고용형태 비교: 영국과 독일의 제도적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전
기사학회대회 자료집.
- 김희경(2006) 중년남성과 중년여성의 우울과 신체적, 사회·심리적, 인지적 요인 비교. 성인간
호학회지, 18(3), 446-456.
- 문선웅·전인우(2011) OECD 회원국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에 관한 실
증연구: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5(1), 241-266.
- 박세홍·김창엽·신영전(2009)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한국복지패널을 이
용한 우울감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27, 79-120.
- 박재규·이정림(2011) 한국 성인 남녀의 우울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과 사회
과학, 29, 99-128.
- 반정호(2006) 우리나라 남성 30·40대 핵심연령층의 고용안정성 평가. 노동리뷰. 2006.6,
14-24.
- 서재만(2011)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경제현안분석 제65호. 국회예산정책처.
- 성준모(2010) 저소득층 중년여성의 관계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10-133.
- 성지미·안주엽(2004) 자영업과 가교일자리. 노동경제논집, 27(2), 1-27.
- 송이은(2010) 고용지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
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931-949.
- 송이은·김진영(2012)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
로. 보건사회연구, 32(1), 228-259.
- 안주엽·성지미(2003)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노동경제논집, 26(2), 1-30.
- 오유진(2009) 만족도를 이용한 자영업에 대한 연구. 응용통계연구, 22(2), 281-296.
- 이병훈·신재열(2011) 자영업자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92, 247-274.
- 이정인·김계하·오순학(2003) 중년 남성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3), 422-431.
-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주)창비: 서울.
- 정순돌·구미정(2011) 우울 영향 요인: 베이비부머, 예비노인, 현재노인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2, 305-324.
- 최미경·이영희(2010) 중년성인의 우울과 무력감, 사회적지지 및 사회경제적 상태. 정신건강
간호학회지, 19(2), 196-201.

- 최선희 · 정우석 · 이자해(2007) 고용안정성이 임금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 최수찬 · 박해웅(2005) 근로자의 사회정서적 문제가 스트레스와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177-196.
- 한국노동연구원(2009) OECD국가들의 실질은퇴연령. 2009년 7월호, 85-87.

자영업주의 정신건강 : 우울을 중심으로

이 종 희(고려대학교 강사)

본 연구는 자영업주가 가진 몇 가지 특성들이 자영업자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자영업자의 수와 자영업자가 가진 특성들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중요한 학문적,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2년 6월이 비하여 자영업자 수는 19만6000명이 증가하였다. 7월 한 달간 증가한 취업자 수(47만 명)의 42%를 차지한다. 2002년 4월(22만 명)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2006년 5월 이후 계속 줄던 자영업자 수는 2011년 8월 증가세로 돌아선 뒤 1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중앙일보, 2012년). 또한 20, 30대 일자리는 감소하는데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괄목할 만하다.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50대는 27만5000명, 60대 이상은 25만1000명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은퇴자들이 퇴직금으로 창업에 나선 경우가 상당수로 추정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고 안정적이지 못하며, 이들의 사회 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무직자-임시근로자-자영업자로 순환되는 저소득-저임금의 악순환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고연령층에 많이 분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편 현재 소비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수익성이 떨어져 버티지 못하는 퇴출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취약성들이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7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를 활용하여 자영업주의 정신건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자영업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약 6%의 연구 대상자들은 병리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을 만 한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단계별 회귀분석 결과 개인 관련 변수만을 투입한 모델에서는 주관

적 건강과 가족 관계 만족 수준이 높고 남성, 고졸이상인 경우 우울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인 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 사업체 관련 변수를 투입한 결과, 사업체 변수는 자영업주의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최종모델인 자아 존중감 투입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주의 우울의 3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자영업 관련 연구가 경제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비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의의를 갖는다는데 동의한다.

향후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우울증을 탐색하는 연구로, 몇 가지 중요한 설명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설명 요인들은 자영업자의 우울증을 설명하는 요인인지, 일반적인 성인들의 우울증을 설명하는 요인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의 분석에서 논의된 다양한 설명 요인들은 일반적인 성인들의 정신 건강을 설명하는 요인인 바, 한국복지패널 중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임금근로자의 우울증을 설명하는 요인들과 비교 분석하는 시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둘째, 연구의 동인이 되었던, 일부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취약성(고용지위, 생계형 창업증가시기에 창업이 이루어 졌는지 등)이 실제로 연구 결과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들 통해 발견된 공통적인 발견점은 혼인지위 상실, 가족 등의 사회적 지지, 가족관계 만족도, 결혼 지위 등이 남녀 성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혼, 별거, 이혼, 사별의 결혼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가 본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지 기대된다. 셋째, 연구 대상자들의 우울증 정도는 평균 4.25으로 16점인 경우에 우울증이 높다는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가정해 볼 때 다소 낮았으며, 약 94%의 대상자들은 일상적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단성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탐색해보는 연구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은퇴 후 창업. 자영업자 증가 폭 10년 만에 최대. 2012년 8월 17일.